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

모두 발언

2025.8.26.(화) 13:40
보험개발원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입니다.

먼저, 오늘 협약식에 참석해 주신 협약기관 대표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금융의 책임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상공인 지원, 채무조정,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근절 및 생산적 금융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작은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국민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정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놓인 큰 산이 아니라, 신발 속 작은 자갈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는 말*은 항상 금융소비자의 입장에 서보게 합니다.

* It isn't the mountains ahead to climb that wear you down, It's the pebble in your shoe

지난주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협약식을 통해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소소금”, 소비자를 **웃**게 하는 **금**융 두 번째 정책입니다.

II 보험업권 상생상품 운영의 의의

보험은 안전과 건강 보장, 노후 대비까지
삶의 때 순간마다 국민 곁에 있습니다.

올해 산불과 집중호우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도
보험은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합심하여 마련한 이번 상생상품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지원에 중점을 두고
6개 보험 상품*을 선정하였으며,
보험업권의 상생기금을 활용하여 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 ①신용보험, ②상해보험 ③기후보험 ④풍수해보험 ⑤화재보험 ⑥다자녀안심보험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안심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현재 마련된 상품안에 각각 300억원 전액 지원시 기준

특히, 이번 상생방안은
지역경제 상황과 특성에 맞게
지자체와 함께 상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7개 시·도에 계시는 국민들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III 마무리 말씀

보험업권은 지난 1년간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고
건전한 제도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상품, 판매채널, 회계제도 등을 망라하고
어느 것 하나 덮고 지나가는 일 없이 고쳐가면서
국민들의 신뢰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보험업권의 상생상품은
국민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보험의 기본은 상호부조 정신에 있습니다.

이번 상생상품은 '보험 개혁' 작업 이후,
보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순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보험업권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대한민국의 선도 금융업권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업권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감독·관행 등의 측면에서
뒷받침하며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